



## 미 증시, 연준위원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약세

### 미국 증시 리뷰

16 일(화) 미국 증시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준이사의 매파적 발언 이후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국채 10년물 금리 재상승 등에 하락 마감. (다우 -0.62%, S&P500 -0.37%, 나스닥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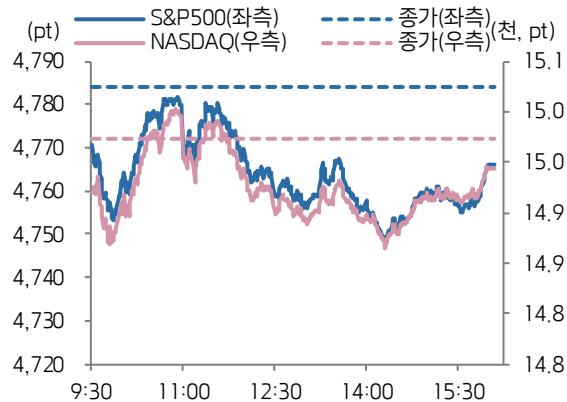
매파성향 인사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책변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발언. 최근 경제지표는 이보다 좋을 수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 “이전 많은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는 종종 신속하고 큰폭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가 넘는 득표율로 1 위 차지. 트럼프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1.2%로 2 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19.1%로 3 위에 그침. 이는 공화당 역대 경선 중 가장 큰 득표율 차이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 구도가 조기에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 제기.

업종별로 IT(+0.4%)만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2.4%), 소재(-1.2%), 유튜리티(-1.1%)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커짐. AI 기대감에 마이크로소프트(0.46%), 엔비디아(3.06%), 마이크론(2.69%), AMD(8.31%) 등은 강세. 그러나 애플(-1.23%)은 수요둔화를 이유로 중국에서 18 일부터 21 일까지 아이폰 15 가격을 5% 인하한다는 보도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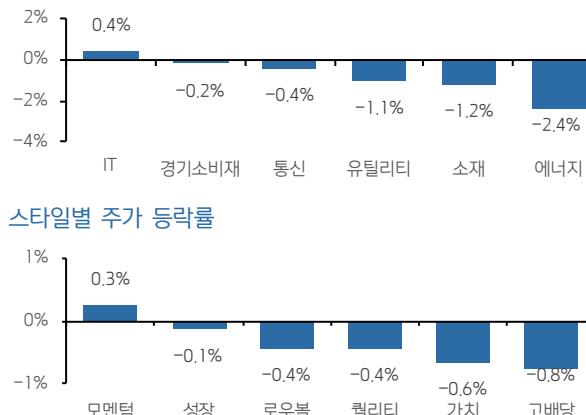
골드만 삭스(0.71%)는 4 분기 실적에서 자산관리 매출, 플랫폼 솔루션 매출 등에 힘입어 이익이 개선되며 EPS 5.48 달러로 발표, 시장 예상치 3.62 달러로 추정치를 큰폭으로 상회. 모건스탠리(-4.16%)는 매출 및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순익은 YOY 30% 감소하며 주가는 약세. 4 분기 순익 감소 요인으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과한 특별 부담금 등을 지목.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97.59	-1.12%	USD/KRW	1,331.74	+0.88%
코스피 200	334.73	-1.33%	달러 지수	103.34	+0.92%
코스닥	854.83	-0.57%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339.10	-0.54%	USD/CNH	7.22	-0.01%
S&P500	4,765.98	-0.37%	USD/JPY	147.20	+0.01%
NASDAQ	14,944.35	-0.19%	채권시장		
다우	37,361.12	-0.62%	국고채 3년	3.231	+3.6bp
VIX	13.84	+4.45%	국고채 10년	3.315	+2bp
러셀 2000	1,927.30	-1.21%	미국 국채 2년	4.220	+7.5bp
필라. 반도체	4,105.94	+1.32%	미국 국채 10년	4.058	+11.9bp
다우 운송	15,342.58	-0.83%	미국 국채 30년	4.295	+1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46.51	-0.18%	WTI	72.4	-0.39%
MSCI 전세계 지수	724.03	-0.1%	브렌트유	77.89	-0.33%
MSCI DM 지수	3,165.14	-0.1%	금	2030.2	-1.04%
MSCI EM 지수	995.16	-0.11%	은	23.09	-1.01%
MSCI 한국 ETF	58.99	-3.86%	구리	376.65	+0.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8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4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6.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월러 의사 매파 발언, 미국 증시 부진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1월 한달간 코스피가 6% 가까이 하락한데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가능성
3. AI, 반도체 등 IT 업종 중심의 반등 시현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 주요국 증시 전반에 걸쳐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은 연준의 정책 전환과 기업 이익 성장 기대감이 후퇴한 데서 기인(연초 이후 코스피 -6.9%, 코스닥 -1.4%, S&P500 -0.1%, 나스닥 -0.4%). 전일 월러 연준 의사도 “올해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만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금리인하 강도를 둘러싼 시장의 전망을 수정하게 만들면서 미국 증시 부진을 유발(CME Fed Watch 상 3 월 인하 확률 77%에서 65%대로 하락).

1 월 16 일자 BofA 의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조사기간 1 월 5 일~11 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서베이에 의하면, 2024년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으로 “연준(응답률 52%)”, “이익(응답률 33%)” 이 두가지가 응답률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연초 이후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과 같이 낙폭과대 국가, 또는 증시 내 낙폭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은 수시로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지수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시점은 FOMC, 빅테크 실적 등이 집중된 1 월 말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

또한 상기 서베이에서 잠재적인 주가 급락을 초래할 수 있는 꼬리위험(Tail risk)으로 “경기 하드랜딩(응답률 24%)”, “고인플레이션(응답률 21%)”을 제치고 “지정학적 긴장(응답률 25%)”이 지난 10 월 서베이 이후 다시 1 순위로 올라왔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볼 필요.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북한의 수위 높은 무력 도발 등과 같은 워스트 시나리오의 현실화에 베팅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 하지만 신규 재료(or 한동안 묻혀 있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 특성을 생각해보면,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환, 상품 시장을 거쳐 증시에도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러-우 사태 급이 아닌 이상 지정학적 이벤트는 단기적인 진폭만 키우는 재료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시의 역사이지만, 현재는 연준 정책 전환 및 이익 성장을 둘러싼 자신감 하락과 얹히면서 투자심리 회복에 중간중간 제동을 걸 수 있음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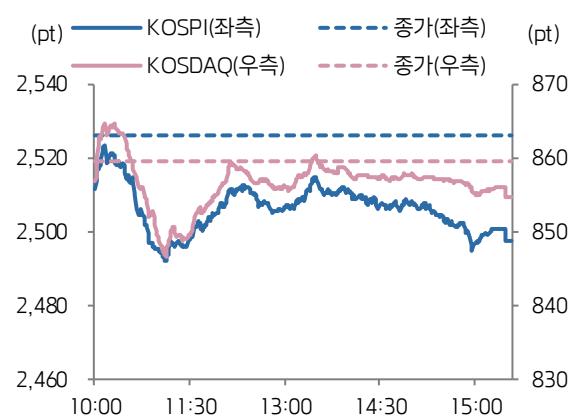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국 선박 공격,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전환한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원/달러 환율 급등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를 유발하면서 급락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0.6%).

금일에는 월러 의사의 매파 발언, 미국 증시 부진 등 외부 부담 요인에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엔디비아(+3.1%), AMD(+8.3%) 등 AI 주 포함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1.3%) 급등 효과 등에 힘입어 IT 업종을 중심으로 재차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현재 코스피는 일간 기준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인 60 일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기술적으로도 추세 붕괴 불안이 점증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현 주가 레벨은 하방 베팅 시 발생할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구간에 있다고 판단. 가령, 16 일 종가 기준으로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어닝스 일드캡(PER 의 역수 - 3 년물 국고채 금리, 값이 낮을수록 주식 매력 낮음을 의미)은 6.8%p 대까지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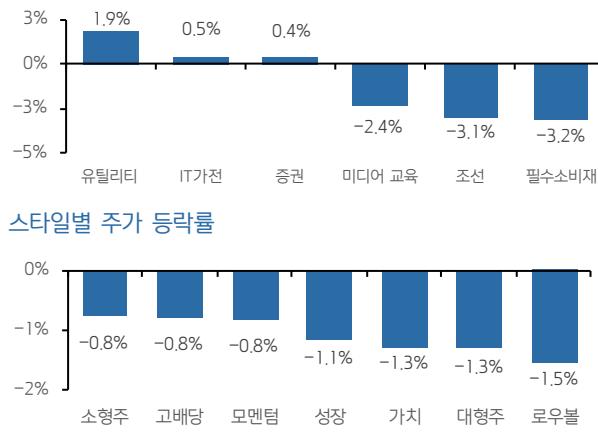
이는 코스피가 2,200 선을 하회했던 2022년 10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시사. 물론 이익전망 하향 중이 진행 중이며 FOMC 등 월말까지 대형 이벤트를 치러야 하기에, V 자 형태의 빠르고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는 건 힘들 수 있음. 그래도 현시점부터는 추가 매도 작업에 나서기 보다는, 기존 포지션 유지 또는 낙폭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신규 매수를 통해 향후 찾아오는 반등 국면에서 얼마나 성과 복원을 해나갈 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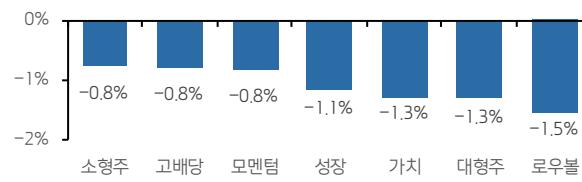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